

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

브릿지경제

농어촌공사, 안전영농, 풍년농사 기원...통수식 개최

홍석기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2-04-23 08:42



농어촌공사는 22일 전북 동진지사에서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대표통수식을 개최했다./농어촌공사 제공
한국농어촌공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안전영농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국내 최대 평야지인 전북 동진지사에서 22일 개최했다.

통수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 흘려보내는 행사로, 이날 통수식은 ‘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’을 활용해 원격으로 낙양취입보와 금평저수지의 급수를 실시했다.

22일 현재,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6%로 예년에 비해 109% 높은 수준이지만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별 맞춤형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



전북 동진강 방수문 모습/농어촌공사 제공

실제 저수율이 부족한 경우,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양수시설을 활용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직접 급수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.



전북 백파제 통수/농어촌공사 제공

또한 통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 급수가 진행되는 동안 ICT를 기반으로 한 용수량 계측과 수리시설 원격조작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절약해 ESG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.

이병호 사장은 “작년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농가에 선제적 급수를 지원해 물 걱정을 덜었던 것처럼, 벼농사 역시 물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적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나주=홍석기 기자 ilemed@viva100.com
